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



정흥수  
한국방재협회장

저는 오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심재현 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귀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국립방재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조원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제2대 연구소장이신 송재우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님과 귀빈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심재현 원장님은 제가 직접 연구소 핵심요원으로 선발했기에 오늘 기념식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도 무척 감회가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방재·재난안전의  
모든 부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맡아  
국가 방재·재난안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1991년 4월 정부방침에 의거 30여 년간 건설부(지금의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해오던 방재기능이 내무부(지금의 행정안전부)로 이관됩니다. 이에 반발하는 건설부 공직자들이 1990년 8월 20일 정부수립 후 최초의 공무원 항명사태를 야기케 한 역사적인 사실, 모든 일간지 신문의 Headline은 이 기사로 가득 채워져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정부기능 이관 결정에 따라 17명의 방재과 직원과 함께 낯설고 물설은 내무부 방재과장으로 임명되어 방재·재난안전기능의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행정직군의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재해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혼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이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1991년 7월 미리내 성지를 할린 경기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그 해 8월 영남과 강원지방을 덮친 태풍 글레디스는 함께한 동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그해 말까지 낮과 밤 없이 침식을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해야 했습니다. 함께한 동료들이 이 자리에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부 수자원국과 다른 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범부처적 기능으로 풍수해대책을 수행하던 재해대책업무가 내무부로 이관 이렇게 왜소한 조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기에 저는 동분서주하며 3~4년 동안 과(課) 기능을 국(局) 기능으로 확대 개편하고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함과 아울러 소하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한숨 돌려 방재·재난안전기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립방재연구소(지금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설립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때가 1996년 하반기였습니다.

이 때의 국내환경은 공공기관의 조직 축소가 화두로 떠올라 정부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조직을 슬림화하는 즉,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정책기조가 공직사회를 강하게 지배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방재·재난안전대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연구기능의 설립이 절실하였기에 혼신을 다하였지만 당시 상황은 녹록치 않았고 연구기관을 신설, 정부조직을 늘리겠다고 덤비는 제자신이 어찌면 무모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음을 불사르며 열심을 다해 국내·외 자료를 틈틈이 모아

연구원 설립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무부 장관님께 보고 드리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지금의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였으나 정부 출연기관의 설립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2~3년 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첫 번째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방재연구기능의 설립이 절체절명 했기에 다시 국무총리실을 노크하여 별정직 공무원 70명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해 줄 것을 보고 드렸으나 인원을 31명으로 축소하여 국무총리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이어 재정경제원(지금의 기획재정부) 총괄심의관(국장)에게 보고 드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총괄심의관은 이에 대한 보고 받기를 거부하고 KDI 등 타 분야 연구기관은 필요하지만 방재연구소 설립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며 완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더 이상 함께 논의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래도록 방재정책업무를 수행해 오며 연구기능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저로서는 물러설 수 없어 일단 보고를 받으신 뒤 결론을 내려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였고 이를 총괄심의관이 받아들여 국장실 문을 잠그고 3시간여를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상학적 요인 등 국내 재난환경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방재분야 연구기능의 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심의관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실장 결재만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자제가 논리 싸움에 졌다는 엘리트 관료의 아름다운 승복과 함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예산실장실로 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퇴근시간이 될 때까지 보고시간을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해 많이 곤혹스러웠지만 1차 관문을 넘어섰기에 자신감으로 총만되어 기다림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근시간이 다되어 보고 기회를 가져 30분에 걸친 보고를 통해 예산실장의 결재를 받아 명실 공히 국립방재연구소(지금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틀을 확정 1997년 9월 2일 조해녕 내무부 장관님을 모시고 역사적인 국립방재연구소 개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모든 정부 예산과 조직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벽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벽을 넘으면 장·차관은 의례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어진 연구기능이기에 20년이 지난 지금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장을 보는 이시간 방재·재난안전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며 올곧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저로서는 감히 재난안전 전문가로서의 뿌듯한 긍지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20여명으로 연구업무를 시작한 국립방재연구소를 185명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발전시켜 온 심재현 원장님과 각 실장, 팀장, 연구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역사는 씩여지는 것이 아니라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재·재난안전부문의 역사는 우리들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철저히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자칫 모든 부문마다 숨겨진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여 지나쳐버린 채 저절로 이루어진 듯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러한 문화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장황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기념식을 갖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설립 당시의 긴박했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연구원을 계승해 갈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자긍심을 심게 하는 요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 방재·재난안전의 THINK-TANK 역할뿐 아니라 날로 심화되어가는 기후변화 환경과 사회재난의 과학적인 대처에 걸맞은 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명실공히 방재·재난행정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해야하고 “방재·재난안전의 모든 부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맡아 국가 방재·재난안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